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창립예배

포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
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
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4층 사무실 5층 본당)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찬 송 34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실천강령선언 인 도 자
찬 송 394장 다 같 이
기 도 조인제 장로
. (충현교회, 건국의대교수)
성 경 봉 독 마 16:16-19 남윤환 목사(영길교회)
특 송 한세대 34회 동기모임
설 교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이규왕 목사
. (수원제일교회 담임, 수원신학교학장)
찬 송 246장 다 같 이
현 금 다 같 이
봉 헌 기 도 정선호목사(광현교회)
권 면 오부영목사(안산중앙교회)
축 사 김영관목사(베트남 휴먼기술학교장)
답사 및 광고 인 도 자
찬 송 268장 다 같 이
축 도 이규왕 목사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심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정보, 전략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양교회 창립예배에 제일 먼저 다녀가신 목사님

주양교회 창립예배는 2003년 6월 9일 월요일이다. 그런데 딱 두 주일전 월요일에 계룡산자락아래 아름답게 세워진 학봉교회 장지길목사님께서 아침 7시에 전화가 오셨다. 지금 출발하여 교회에 오신다는 것이다. 이사 온지 1달이 안돼서 오시나보다 생각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혹 창립예배인줄 착각하시고 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다시 전화를 드렸다. 오늘 창립예배가 아니고 두 주일 후라고 했다.

목사님께서 이미 고속도로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시겠다고 했다. 아마도 빨리 오고 싶으셨나 보다. 그럼 목사님 창립예배 때 또 오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하셨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신 목사님은 교회와 사무실을 둘러 보시고 나무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주 잘되었다고 하셨다. 교회개척과 이곳에 이사는 이후에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요즘 개척이 얼마나 힘든데..."라고 하셨다.

사실 목사님과는 특별히 교단이나 어떤 관련이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부족한 종이 하는 일에 격려를 해주셨다.

이곳에 이사와서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었다. 점심식사와 교제,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셨다.

만나본 것은 월요일인데 금요일아침에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목사님께서 주무시는 상태로 소천하셨다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놀란 가슴을 안고 영정이 모셔진 곳을 찾았다. 이제 다른 세상에서 만나 봐야 할 분이 되었지만 다시 목사님을 뵈는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목사님께서 위낙 꼼꼼하신 분이랄까 날짜를 착각하실 분이 아니셨다. 부족한 종이 교회를 창립하고 사무실을 이전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오시고 싶으셨던 것이다. 장지길 목사님은 주양교회 창립예배에 제일 빨리 다녀가신 분이며 제일 큰 기쁨을 주시고 가신 분이다. <이영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오전 11:00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찬양, 성경강해
 새벽 5:30 / 새벽예배
 수요일 오후 8:00 / 삼일예배(주제별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9:30 / 심야예배(찬양과 기도집회)



오늘을 행복하게

주를 앙모하라

본문 : 사 40:27-31

사람은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과 부모나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굳이 잘못 되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책임지고, 죽음에서 구원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 보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원문의 "앙망"은 '모으다, 기대하다, 쳐다보다'로 간절히 소망을 담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성경은 'Hope'로 번역했습니다. 이 원어의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기대하는"으로 달리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

천재지변을 당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사람은 참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발사하고 생명을 복제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자연 재해를 당할 때 보면, 참 무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편안할 땐 대단한 줄 알고, 힘들고 고달프면 누군가에게 매달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애굽을 향해 열 번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군대를 홍해를 갈라 빠뜨리고 그 속에서 구원해준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면서 순간순간 저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는 자가 많게 되자 다시 모세에게 불뱀을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이영제 목사
주앙교회 담임
컴퓨터선교회 대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불뱀을 쳐다 본즉 살더라"(민21:9)고 했습니다. 불뱀은 자신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처럼 비싼 금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불뱀은 장난감 같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 얻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밤중에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량이 일어 배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삼킬 듯 무섭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항해자는 캄캄한 밤하늘에 뚜렷이 빛나는 하나의 별, 북극성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사 38:14)라고 했습니다. 눈이 빨개지도록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고,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힘을 주십니다(사 40:31). 뿐만 아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사 45:22)고 하셨습니다.

